



NS홈쇼핑, 20일까지 '설레는 텐텐' 이벤트

NS홈쇼핑이 2023 계묘년 새해를 맞아 20일까지 '설레는 텐텐' 이벤트를 실시한다. 자사 모바일 앱에서 구매 시 최대 2만 원까지 쿠폰을 통한 10% 할인 혜택과 10% 적립금을 동시에 제공한다. 할인 적립금은 10만 원 이상 2회 구매 시 증정한다. 2월 6일 지급 예정으로 지급일로부터 30일까지 유효하다.

새해 달라지는 자동차 제도는?

“1차선 정속 주행 시 과태료…전기차 보조금 ↓”

(고속도로)

2023년 계묘년을 맞아 자동차 및 교통관련 제도에 많은 변화가 예고되어 있다. 최근 소비자들의 관심이 가장 높은 전기차 보조금은 축소되었으며, 개별 소비세 인하는 6월까지 연장됐다. 또한 고속도로 1차선 정속 주행시 과태료 부과, 사고다발지역 우회전 신호등 신설 등 교통안전에 위한 다양한 제도들도 신설된다. 주요 변화를 살펴봤다.

고속도로 정체 시 일반 주행 가능
전기차 국비 보조금, 20만 원 줄어
직영 서비스센터 유무도 보조금 영향
차사고 경상환자 보상기준 재정비

●교통사고 다발 지역에 우회전 신호 설치

새해 반드시 알아둬야 할 제도 변화는 고속도로 1차선 정속 주행시 과태료 부과다. 지난해 7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올해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고속도로 1차선은 '앞지르기 추월차선'이기 때문에 일반 주행시에는 사용하면 안 된다. 도로 여건에 따라 차로가 적거나 시속 80km/h 미만의 정체가 있을 경우에만 일반 주행 차로가 될 수 있다. 다만 버스전용차로가 1차로인 경우 2차선이 앞지르기 차로가 된다. 이를 어기면 승용차의 경우 과태료 7만 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23일부터는 교통사고 다발 지역에 우회전 신호등이 별도로 설치된다. 교차로 진입시 우회전 차량은 일단 멈춘 다음 출발하도록 법이 바뀌었지만, 방법이 복잡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운전자가 비보호 우회전을 할 수 없고, 신호등에 오른쪽 방향 화살표 등이 켜졌을 때만 우회전이



올해 전기차 국비 보조금은 700만 원에서 680만 원으로 20만 원 줄어든다. 다만 전액 보조금을 지급 받는 기준을 차량 가격 5700만 원 이하로 상향해 보조금 지급 대상은 확대될 전망이다. 현대차그룹 전기차 초고속 충전소 'E-pit(이피트)' 사진제공 | 현대차

가능하다.

경상 환자의 보상기준을 합리화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도 1월에 시행된다. 경상 환자가 4주를 초과해 입원하면 반드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경미한 자동차 사고에도 장기간 입원하는 '나이롱 환자'를 줄이기 위한 정책이다.

●전기차 보조금 체계 개편

올해 정부는 전기차 구매 보조금 체계 개편을 추진 중이다. 환경부는 지난달 15일 자동차 산업 관련 협회와 완성차 업체들을 대상으로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설명회를 진행했다. 이날 환경부가 밝힌 개편안에 따르면 올해는 전기차 1대당 최대 700만 원까지 지급했던 전기차 국비 보조금은 680만 원으로 20만 원 줄어든다. 다만 전기차 전액 보조금을 지급 받는 기준을 차량 가격 5500만 원 이하에서 5700만 원 이하로 200만 원 상향해 보조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을 검토 중이다.

또한 환경부는 올해부터 직영 서비스센터 구축 여부를 전기차 보조금 산출 기준에 추가로 넣기로 했다. 만약 직영 서비스센터가 없으면 최대 250만 원의 전기차 보조금이 줄어들 전망이다. 직영 서비스망을 갖춘 국내 완성차 브랜드는 보조금에 변동이 없지만, 직영이 아닌 딜러사들이 서비스센터를 운영하는 수입차 업체의 전기차 보조금은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북미산 전기차에만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시행하는데, 우리나라는 국민 세금으로 수입 전기차를 지원한다는 비판을 의식한 정책이라는 분석이다.

●개소세, 유류세 인하 연장

지난해 종료 예정이었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감면(기본 5%→탄력세를 3.5%·한도 100만원) 조치는 올해 6월까

지 연장된다. 최근 전 세계 공급망 불안으로 인한 출고 지연으로 혜택을 받지 못한 소비자들을 고려한 결정이다. 또한 올해 1일부터 아이가 셋 이상인 다자녀 가정은 개소세가 완전히 면제된다.

지난해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인하 조치도 4월까지 연장된다. 다만 휘발유의 경우 국내 휘발유 가격이 타 유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이는 점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 37%에서 25%로 축소해 리터당 99원이 비싸진다. 경유와 LPG부탄은 지급처럼 유류세 37% 인하를 유지한다.

차량 구매시 부과되던 채권매입 의무제도는 1600cc미만의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를 구입할 때는 면제하도록 개선된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1598cc 2000만 원인 소형자동차 구매시 40만 원의 지역 개발채권을 매입했지만, 조례가 개정되면 3월부터는 완전히 면제된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LG전자, 스마트 수면케어 '브리즈' 공개

'CES 2023' 서 선포…다양한 수면 솔루션 제공

LG전자는 5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막하는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 2023'에서 스마트 수면케어 솔루션 '브리즈'(사진)를 선보인다.

브리즈는 뇌파를 측정하고 수면케어 사운드를 들려주는 전용 무선이어셋과 고객의 수면 데이터를 분석해 수면케어 솔루션을 제공하는 앱으로 구성된다. 귀 형상에 맞춰 인체공학적으로 디자인된 무선이어셋은 잠을 자는 동안에도 안정적이고 편안한 착용감을 제공한다. '뇌파동조 사운드'를 포함한 루시드플 등 국내외 아티스트들이 직접 작곡한 '자장가', 자연의 소리와 같은 'ASMR' 등 다양한 음원으로 고객 수면을 케어한다.

특히 뇌파동조 사운드의 경우, 왼쪽 뇌와 오른쪽 뇌에 각각 다른 주파수를 들려줌으로써 주파수 차이를 이용해 잠이 들게 하거나 특정 수면 상태로 전환을 촉진하는 뇌파를 유도한다. 브리즈는 고객 수면 데이터를 분석하고 스스로 학습한 후 더 나은 수면 패턴을 제안한다. 또 최적의 수면 패턴에 기반한 케어 솔루션을 제공하며 수면의 질을 보다 향상시켜준다.

브리즈는 LG전자가 신사업을 육성하고 새 시장으로 개척하기 위해 운영 중인 CIC(사내벤처기업) 가운데 슬립웨이브 컴퍼니가 기획 출시한 혁신 모델이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에버랜드, 초대형 토끼·나비 체험관 오픈



에버랜드는 2023년 토끼해를 맞아 초대형 토끼와 함께 봄을 미리 경험하는 라이브 나비 체험관을 6일 개장한다. 우선 광장 매직트리 옆에 15m 높이의 초대형 토끼 조형물 '래빅'(사진)을 만들었다. 래빅 옆에는 '라이브 나비체험관'이 6일부터 문을 연다. 긴꼬리제비나비, 큰줄흰나비, 남방노랑나비 등 매일 5종 5000여 마리의 나비들이 날아다니는 모습을 5월까지 관찰할 수 있다. 고객 참여 나비 체험 교육 프로그램도 있다. 겨울방학을 맞아 겨울맹수들을 관찰하는 '원터 굿모닝 사파리 투어'도 5월부터 진행된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9만 명 모집 시작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2023년 근로자 휴가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2일 시작했다. 근로자의 휴가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근로자가 2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 10만 원, 정부 10만 원을 추가 적립해 총 40만 원의 국내 여행 경비를 조성한다. 참여 대상은 중소기업, 중견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및 사회복지법인·시설 근로자다. 소상공인 및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은 대표도 참여 가능하다. 2일부터 기업 단위로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사이트에서 신청을 신청할 수 있다. 참여 근로자 9만 명에 대한 지원예산 소진 시까지 모집한다.

대상웰라이프, 3종 기능성 '관절내강' 출시



대상웰라이프는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웰라이프를 통해 3종 기능성 '관절내강'(사진)을 출시했다. 관절과 연골 건강을 위한 MSM과 NAG, 뼈의 기본 성분인 칼슘을 배합한 제품이다. 대추, 당귀, 감초 등 한약재의 향과 맛을 부드럽게 살려 편하게 마실 수 있다. 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 원료 MSM 2000mg을 함유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 1일 최대섭취량이다.

편집 | 신하늬 기자 mythuki@donga.com

쌍용건설 새 수장에 김기명 글로벌세아 대표 선임

양사 대표이사직 겸임…시너지 기대

지난해 12월 쌍용건설 인수절차를 최종 마무리한 글로벌세아가 2일 쌍용건설 새 대표이사로 김기명(사진) 글로벌세아 대표이사를 선임했다. 김석준 쌍용건설 회장은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지만 회장직은 그대로 유지한다.

글로벌세아 대표직을 겸임하는 김 신임 쌍용건설 대표이사는 1983년 외국계 종합상사인 스와이어&맥클레인에 입사한 뒤 1995년 월마트로 옮겨 이후 한국 지사장을 맡았고 인디에프 대표이사, 세아상역 미국총괄 법인장 등을 지냈다. 회계·재무·인사관리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는다.



부사장직도 겸임한다.

글로벌세아는 이달 중 쌍용건설의 재

김인수 전 현대건설 GBC 사업단장은 쌍용건설 사장으로 선임됐고, 세아상역 심철식 부사장이 경영지원 총괄 본부장을 맡게 됐다. 심 본부장은 세아상역

무 환경 개선과 영업활동 지원을 위해 1500억 원 규모 유상 증자를 진행할 계획이다. 유상 증자가 마무리되면 글로벌세아 그룹의 쌍용건설 보유 지분은 약 90%에 이르게 된다. 쌍용건설은 "김기명 대표이사는 쌍용건설과 글로벌세아 그룹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며 "김석준 회장은 앞으로도 쌍용건설의 경영 안정화와 사업 확장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도현 기자 dohoney@donga.com

한국수입자동차협회, 정운영 상근 부회장 선임



한국수입자동차협회(이하 KAIDA)가 전 세계자연기금 한국본부(WWF Korea) 정운영(사진) 국장을 협회 상근 부회장으로 선임했다고 1일 밝혔다.

KAIDA는 "정 부회장이 30년 이상의 풍부한 통합 및 전문적 인지도 관리 업무 경험, 한국 및 글로벌 시장과 기업에 대한 깊은 이해, 조직 및 수익관리 경험 등을 바탕으로 협회 회원사와 국내 시장 간의 가교

역할을 하며 협회와 업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끌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틸 세어 KAIDA 회장은 "KAIDA는 국내 자동차 관련 부처는 물론, 국내외의 관련 기관과 보다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있다"며, "정 부회장이 합류함으로써 KAIDA가 향후 모빌리티뿐만 아니라 보다 넓은 관점에서 업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원성열 기자

메디힐, 신년 맞아 올리브영서 마스크팩 세트 할인



엘엔피코스메틱의 글로벌 뷰티 브랜드 메디힐이 신년을 맞아 31일까지 CJ올리브영에서 마스크팩 기획세트 할인 행사를 연다.

먼저 베스트 마스크팩인 '콜라겐 에센셜 마스크팩'(사진) 10+1 기획세트를 50% 할인가에 선보인다. 식물성 콜라겐 성분을 가득 담아 피부에 탄력과 영양을 선사하는

제품으로, 건조하고 추운 날씨로 피부 집중 케어가 필요한 겨울 시즌에 제격이다.

또 '마데카소사이드 에센셜 마스크팩' 10+1 기획세트도 출시해 50% 할인가에 판매한다. 민감 피부 진정 및 잡티 흔적 케어에 효과적인 제품으로, 브랜드 대표 마스크팩인 '티트리 에센셜 마스크팩'과 함께 '진정 케어 듀오'로 불리며 큰 사랑을 받고 있다. '2022 상반기 글로벌우익 어워드' 시트마스크 부문 루키로 선정되며 인기를 입증하기도 했다.

정정욱 기자